

2018년 12월 14일, 제주시 연동 고응상 씨 댁, 이효순 조사.

고응상(남, 1949년생, 제주시 연동)

- 제주시 삼도동에서 태어났으며 70년째 제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관덕정을 지어서 상량을 하려고 하면 상량판이 자꾸 무너져 목수들과 지관들이 닭머리로는 안되고 사람을 희생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상량식날이 되자 어떤 사람이 닭머리로도 상량식이 잘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지나갔다. 시간에 맞춰서 닭머리를 칼로 치면서 ‘상량이요.’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에 구경하던 솔장사가 깜짝 놀라 넘어지면서 그의 머리 위의 솥으로 솔장사의 목이 잘렸다. 결국은 사람을 희생 제물로 하여 상량식을 하게 된 것이다.

[제보자] 옛날 조선 초에 제주시에 관덕정을 지었는데 상량식 전에 보통 사람들 와서 말하길

“원래 이건 큰 건물이니까 닭 같은 건 안 되고 사람이 죽어야 한다.”

하니까

[조사자] 건 누가 굴은 거마씨?

[제보자] 관덕정 지으니까 소위 지관이라든가 목수들 말이 그렇게 허는데, 한번은 지나가는 사람이

“닭머리라도 죽여도 괜찮으매 그때 웬만 상량식 다 잘되게 되어 있어. 걱정 말아. 사람이 아니면 안되는데 걱정 말양 허여게.”

그 사람은 가 버리고.

[조사자] 지나가던 사람이?

[제보자]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헤서 가 버리고. 그날 따라 이상하게 상량식하는 목수들도 이상하다 허면서도 상량을 위해서 닭머리를 상량식날 그 시간에 맞춰서 닭머리를 칼로 치고

“상량이요!”

허는 소리에 지나가던 솔장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 위에 갖고 가던 솥을 넘어뜨리면서 그 위에 넘어지면서 목이 잘려서 상량

식이 뒷였다. 솟장시 목이 잘라졌어.

원래 관덕정이 사람 목으로 헤야 허는데 닭으로 허는데 지나가는 사람 말 듣고 그 시간에 정확히 하니까 사람 목으로 헤서 상량식이 됐던 허여. 사람이 제물 이었던 거지. 목수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닭머리를 치는데, 그 시간에 ‘상량이요!’ 허는데 놀래갖고 그렇게.

그런데 관덕정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썼냐면 대들보 올리고 다 헤서 상량판 올리전 허문 와르르 무너지고 무너지고 여러 번 계속 무너지니까 ‘사람으로 헤야 한다.’ 했는데도 마지막으로 헤 본다는 게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목이 잘려가지고 죽어서 상량식이 무사히 끝났다.

관덕정이 상량식을 하려다가 여러 번 무너졌다 그래요.

- 핵심어: 관덕정, 상량식, 닭머리, 솟장시(솔장사), 상량판, 목수